DBpia

학습기술 향상 프로그램과 특별보충과정이 학습부진아의 학습습관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s of Study Skill Training Program and Special Supplementary Learning Program on Improvement of Underachievers` study habit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저자 (Authors)
김세정, 이지연, 이은진
Se Jung Kim, Jee Yon Lee, Eun Jin Lee

출처 (Source)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2), 2010.8, 151-170(20 page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7(2), 2010.8, 151-170(20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심리학회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72353

APA Style
김세정, 이지연, 이은진 (2010). 학습기술 향상 프로그램과 특별보충과정이 학습부진아의 학습습관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2), 151-170

이용정보 (Accessed)
서강대학교
163.***.1.208
2022/02/14 17:3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10, Vol. 7, No. 2, 151-170

학습기술 향상 프로그램과 특별보충과정이 학습부진아의 학습습관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김 세 정 효성중학교
이 지 연† 인천대학교
이 은 진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학습기술 향상 프로그램과 특별보충과정을 함께 실시하여 중학교 학습부진아의 학습습관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학습기술 향상 프로그램은 기존의 학습에 관련된 프로그램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중학교 학습부진아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특별보충과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한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학교 현장에서 수정한 것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I시에 소재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 중 직전 학기말 성적이 하위 20%에 해당하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점수의 평균이 60점 이하인 학생들 중 20명을 선발하여 10명은 실험집단으로, 10명은 통제집단으로 배치하였고, 학습기술 향상 프로그램은 매주 2회 60분씩 총 11회기를 실시하였고, 특별보충과정은 매주 2시간씩 20차시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서 학습습관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검사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각각 실시 한 후 SPSS 15.0을 사용하여 ANCOVA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기술 향상 프로그램과 특별보충과정이 중학교 학습부진아의 학습습관 형성에 효과가 있었다. 주의집중행동, 학습기술적용 행동, 자율학습행동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둘째, 학습기술 향상 프로그램과 특별보충과정이 중학교 학습부진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특히 학습전략, 학습동기, 학습자아개념에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실시한 학습부진 중학생을 위한 학습기술 향상 프로그램과 특별보충과정은 학습습관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을 언급하였다.

주요어 : 학습부진아, 학습기술, 특별보충과정, 학습습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지연, 인천대 창의인재개발학과, 인천대학교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2-1
Tel : 032-835-8176, E-mail : becoming@incheon.ac.kr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의 기회 증대라는 양적인 성장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인차를 고려하는 교육의 질적 성장은 도모하지 못했다. 특히 학습할 잠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되는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습부진아들은 결국 학습 결손이 누적되어 낮은 성취도가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행동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 학생들이 겪고 있는 부적응 행동의 원인 중에 상당한 부분이 학업문제에서 기인된다(김동민, 2003)는 점에서 학업부진아 지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습부진아의 학습문제가 학령 초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누적되면 이들은 정상적인 교과 과정에 적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학습의욕과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며 계속된 실패로 인해 좌절감, 열등감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는 학습부진 학생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학습부진아에 대한 교육은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경쟁위주의 주입식 교육만 강조하는 현실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은 간과되기 쉽다. 따라서 학습부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학생들 입장에서 고려하고 실행하는 것은 개개인의 학생을 존중하고, 잠재력을 신장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학습부진의 개념은 학업 성취 수준을 준거로 한다. 즉 학습부진아는 장애로 인한 학습부진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학교학습을 할 수 있는 잠재능력이 있으면서도 환경요인과 개인의 성격이나 태도, 학습습관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기초학습기능이 부족하거나, 교육과정 상에 설정된 교육목표에 비추어 볼 때 최저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습자로 규정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8). 학습부진아는 읽기, 쓰기, 셈하기에서 최소 학업 성취 수준에 미달하는 기초학습부진아와 각 교과가 요구하는 최소 학업 성취 수준에 미달하는 기본(교과)학습부진아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1999). 학습 부진에 대한 판별의 경우, 기초학습부진아는 초등학교 1-2학년까지의 매우 기초적인 학습내용(읽기, 쓰기, 기초수학의 단순한 수준)을 중심으로 작성된 검사를 통해 교과별 총점의 60% 미만의 기준을 적용하며, 교과학습부진아는 교과별 해당 학년의 수행분포에 준한 교과별 특성을 감안하여 총점의 40-70% 미만으로 판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9). 교육전문가들은 학생의 성취점수나 성적이 지능검사 결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을 경우 학습부진으로 간주한다(강명숙, 이현림,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학습부진아의 개념에 기초하여 학습부진아를 '기초능력은 정상이나 교과별(국어, 영어, 수학) 최소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IQ가 정상수준이며 교과별 총점이 60%미만인 기준을 적용하여, 직전 학기말 성적이 하위 20%에 해당하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점수의 평균이 60점 이하인 학생들을 학습부진으로 보려한다.

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부진의 특성과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부진아의 인지적 특성으로는 학습정상아에 비하여 주의집중력, 상상력, 창의력, 사고력, 추리력, 분석력 등이 부족하며(김은주, 1998),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김형립, 1984)이나 중요한 정보를 회상하

는 능력, 단기기억(윤옥기, 1980)에 있어서 낮은 수준을 보이며, 학습능력에 있어서도 어휘력이나 읽기 기능이 전반적으로 같은 생활연령의 학생에 비해 저조하다. 또한 이들은 비효율적인 학습기술을 사용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기술의 사용에 실패하는 경향이 있고 학습기술의 사용에 있어서도 융통성이 부족하다(김동일, 2005; 박한숙, 2000). 이뿐만 아니라 학습부진아가 보이는 정의적 특성 중 학습과 관련된 대표적인 특성으로 낮은 성취동기(김미화, 2003)와 학습에 대한 흥미와 의욕의 결여, 부정적 자아개념 등을 들 수 있다(윤미선, 2003).

학습부진의 원인은 학습자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원인, 교사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원인, 환경에서 비롯되는 원인, 그리고 수업의 질에서 비롯되는 원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신동, 2001). 이 중 환경에서 비롯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 그러나 교사와 학습자 그리고 수업에서 비롯된 원인은 학습부진아를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장인실, 이성규, 2009).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학습부진의 탓을 단순한 학생 자신의 게으름이나 능력부족, 가정환경 등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학습부진아에게 효율적인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학습부진아가 보이는 학습부진과 관련된 원인들 중 환경적인 원인이나 성격, 지능, 인지능력과 같은 부분은 비교적 변화시키기 어려우나 학습기술과 학습습관은 비교적 훈련에 의해 변화시키기 쉬우며 쉽게 습득시킬 수 있는 부분(변영계, 박한숙, 2004; 서병완, 1988)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학습자들에게 사회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강제로 주입하기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흥미와 관심이 있는 분야를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습자 위주의 교육'을 중요한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다(변영계, 김석우, 박한숙, 2000). 따라서 이러한 교육과 관련해서 '학습습관'과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학습습관은 어떤 학습장면에서 학습자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하는 학습방법 또는 일관된 학습행동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강혜숙, 2007). 박경숙과 이혜선(1976)은 학습습관을 주의집중행동, 학습기술적용행동, 자율학습행동의 3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했다. 주의집중행동이란 학습과정에서 주의 집중을 잘하는지 또는 산만한지를 알아보는 것이며, 학습기술적용행동은 학습에 대한 방법 또는 영역이 능률적인지 또는 비능률적인지를 알아보는 것이고, 자율학습행동은 자율학습 또는 예습, 복습에 대한 습관이 능동적인지 아니면 수동적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학습습관을 주의집중행동, 학습기술적용행동, 자율학습행동을 포함한 일관된 행동양식으로 정의한다. 기존의 연구들(김현숙, 2006; 민은주, 2004; 박인주, 2005; 박인주, 박남수, 2006)은 초등학교 학습부진아에게 실시한 학습습관프로그램이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학습 습관을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개인이 스스로의 학습요구를 진단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 물적 자원을 탐색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시행하며, 스스로 학습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박인주, 2005). 일반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면,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의 주체가

되는 교육으로서 자신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제 3자의 권위와 의견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주체적으로 결정하여 그 결과를 책임지는 학습과정을 의미한다(박인주, 2005). 자기주도적 학습의 특징은 학습자가 목표를 세우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습의 전 과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며,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활동을 강조한다는 점, 환경을 관리하고, 학습자원을 관리하며,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적 행동을 포함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우옥연, 2004). 권응환(2004)는 자기주도적 학습 검사에 학습전략, 학습동기, 학습자아개념을 포함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스스로 학습요구를 진단·계획·평가하는 과정으로 학습전략, 학습동기, 학습자아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의 중요한 개념인 학습습관과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부진아의 성공적인 학업성취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학습습관과 자기주도적 학습과 관련하여 현재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실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학습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다.

학습기술이란 학습자가 스스로의 학습목표를 정하고 학업성취를 이루어 가는 과정을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관련된 일련의 기술을 의미한다. 학습기술 훈련 프로그램은 학습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습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평가된 영역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해결하여 학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서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learning how to learn)' 방안으로 학습전략 프로그램, 학습 효율성 증진 프로그램으로 불리기도 한다(박한숙, 설양환, 2009). 이 프로그램은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학습 효율성을 높이고 자기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학습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의 학습기술 검사(이순우, 2002)와 학습기술 훈련 프로그램(박한숙, 2009; 변영계, 박한숙, 2004)에는 자기관리기술, 주의집중, 수업참여기술, 과제해결기술, 시험치기기술, 정보처리기술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박한숙, 2009). 자기관리기술은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공간, 심리적, 신체적 상태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다. 수업참여기술은 수업시간에 학습자가 교사의 설명과 강의를 잘 듣고 노트하여 좋은 성적을 얻도록 돕는 기술이다. 과제해결기술은 학습자가 교사가 내어준 과제를 계획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읽기, 쓰기 기술)을 의미하며, 시험치기기술은 정해진 시험기간, 범위, 출제방식 등에 맞게 재정리하고 복습하여 효율적인 학업성취를 이루어내는 기술을 말하며, 정보처리기술은 장기기억에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의미한다(권응환, 2004). 따라서 본 연구의 학습기술 향상 프로그램에서는 학습기술의 구성요소인 시간관리, 수업참여기술, 과제해결기술, 정보처리, 시험준비를 포함한다.

학습기술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기술과 학업성취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박한숙(2000)의 연구에서는 학습기술과 학업성취 간에 비교적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했고 변영계(1993)의 연구에서도 학업성적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학습기술이 뛰어남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볼 때, 학습부진아는 학습정상아에 비해 학습기술의

사용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학습기술과 학습습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Fralick (1990)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에 통합시킨 학습기술 훈련을 실시하고, 그것이 학생들의 학습습관과 태도 및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였다.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약 10주간의 학습기술 훈련 프로그램(읽기, 노트하기, 과제해결, 시험치기, 수업청취, 시간관리, 도서관 이용 등)을 교수한 후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학습습관 및 태도 검사와 학업성취도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학습기술 훈련은 학습습관과 태도, 그리고 학업성취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연구의 경우, 강태용(2002)은 학습습관의 하위 범주 중에 학습행동 영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학습기술 훈련에 따른 학습습관의 개선효과를 검증하였다. 행동범주를 등교시간이나 수업시간 등과 같은 정해진 규칙 지키기, 과제 제출 시한 지키기, 수업내용 필기하기, 학습도구 준비 등의 영역이 포함된 A영역과 수업내용의 예습과 복습, 수업시간 중에 모르는 내용 질문하기, 시간의 계획과 활용 및 평가, 그리고 쉬는 시간은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 등이 포함된 B영역으로 세분하여 연구한 결과 학습기술 훈련을 받은 실험집단의 학습습관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강혜숙(2007)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참여기술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학습습관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한 결과 수업참여기술 향상 집단상담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습습관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학습기술과 학습습관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학습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습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셋째, 학습기술과 자기주도적 학습과 관련하여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박한숙(2000)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의 관건은 학습하는 방법의 훈련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옥연(2004)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6주간의 학습기술 향상 집단상담을 실시한 결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으며 박한숙(2009)은 초등학생 3, 4학년들을 대상으로 40회기로 학업기술훈련을 진행한 결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의미 있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했다. 이외에도 학습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자기효능감 향상에도 효과적임이 검증되었다(최은순, 2007).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볼 때 학습기술 훈련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의 학습기술과 학습습관 사이의 연구, 학습기술과 자기주도적 학습 사이의 연구뿐만 아니라 학습기술, 학습습관,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세 가지 변인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권응환(2004)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학습기술훈련을 실시한 결과, 학습습관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그리고 학업성취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권응환,2004). 또한 이하선(2007)은 초등학교 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자기관리기술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학습부진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학습습관을 향상시킴을 보고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업기술훈련이 학습습관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향상시킬 것으

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학습부진아의 학업미달이나 결손현상을 모두 채우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김동일(2002)은 효과적인 학습부진아 교육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 중의 하나로 의뢰 전 단계(Pre-referral stage)체제의 개발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즉, 특수학급이나 학습도움교실로 의뢰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의뢰 전 단계"로서 학습부진아가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뢰 전 단계의 개입 모형에서 학습부진학생에게 교육프로그램과 보충학습의 병행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기초로 학습부진아에게 적용하기 위한 학습기술 향상 프로그램과 특별보충과정 프로그램을 함께 고안·적용하여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학습부진 학생의 지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특별보충과정은 다음 단계 진급 기준에는 미달이지만 재이수 없이 다음 단계로의 진급을 희망하는 학생의 학습결손을 보충하고 학생들에게 재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이다(교육부, 1998).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습부진아가 갖는 학습결손의 보충을 위하여 특별보충 과정을 편성·운영함으로써 학습부진아에 대한 의도적인 배려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특별보충과정의 목적은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 교과에서 학습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기회를 정규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에 추가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특별보충과정의 지도 내용은 각 교과에 따른 대 영역별 혹은 단원별 최소 필수 학습 요소를 기초로 한다. 기본 과정에 부진 현상을 보이는 학생들은 교과 전체에 대해 학습결손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특정한 부분에서만 학습결손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특별보충과정에서는 최소 필수 학습 요소를 추출하여 학생들의 성취 특성에 따라 꼭 필요한 학습 요소를 보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심상미, 2002).

특별보충과정의 교수·학습 자료는 정규 수업과는 달리 새롭게 구성해, 이미 사용한 보충 학습 자료를 차시별로 세분화하여 더 쉽게 구성하거나 별도의 구체적 조작 자료를 제작하여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보충과정 대상자는 학습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므로 자료의 요소 선정, 편집 등에서 흥미를 유발시키는 방안을 고려했다. 특별보충과정 운영 시기는 보통 주 1회(1회당 1시간), 학기말, 방학 중, 평일 방과 후의 네 시기가 일반적인데 이 중에서 평일 방과 후에 실시하는 것이 학생 참여도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심상미(2002)의 제안에 따라 방과 후에 특별보충과정을 운영하였다.

특별보충과정운영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담교사의 부재와 적합한 교재의 부족,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의 부족, 학생들의 학습 능력의 부족, 담당교사 수에 비해 학습자의 인원 수 과다, 수업 출석률의 부족, 수업시간의 참여도 및 활동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 등으로 인하여 특별보충과정 운영 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학습 태도 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김준영, 2005; 김혜영, 2004; 양재훈, 2003)이 보고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특별보충과정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보고한 연구도 있었는데, 최은정(2006)은 교사들은 특

별보충과정이 필요하고 학습부진 누적 최소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업무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시했다. 심기만(2004)은 특별보충과정이 기본학습 향상에 대한 기대와 의식정도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교사들은 실제적인 특별보충과정의 운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했다. 또한 김행자(2005)는 특별보충과정의 운영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교사의 업무과중과 학생들의 낮은 학습의욕 및 참여도로 인해 특별보충과정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기피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별보충과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특별보충과정 운영이 학습 결손을 줄여 다음 단계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애숙, 2004; 박현화, 2006), 교과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과 발표력의 향상 등 긍정적인 영향이 보고되었으며(김명생, 2007; 박현화, 2006), 교사와 학생간의 친밀감이 증진된다(이상미, 2003; 한은미, 2003)고 보고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자기효능감 향상(박현화, 2006)을 포함한 학습태도(이상미, 2003; 한은미, 2003)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볼 때 특별보충과정운영의 장점을 학습부진아에게 적용하면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특별보충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모든 교과에서 편성 · 운영할 수 있다(원효헌, 김명생,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국어, 영어, 수학을 특별보충과정에 포함한다.

학습부진아와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들은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에 비해 많은 수의 교과목을 배우게 되고 초등학교와는 다소 다를 수 있는 수업 운영 방식과 더욱 깊어진 학습 내용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업문제는 더 심각하게 초래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업부진을 보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업부진이 더욱 악화되기 쉽다. 대체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취부진을 보이는 학생들의 비율이 늘어 학업성취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나경숙, 2008).

따라서 장기적 학습결손으로 학업을 포기하기 이전에 중학교에서의 학습부진아에 대한 교육적 관심과 적절한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학습기술 프로그램과 특별보충과정이 학습습관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기술 프로그램과 특별보충과정이 중학교 학습부진아의 학습습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학습기술 프로그램과 특별보충과정이 중학교 학습부진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본 연구에 사용된 학습기술 향상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용 학습기술 훈련 프로그램(변영계, 박한숙, 2004), 학습 동기 증진 프로그램(김남옥,

표 1. 학습기술 프로그램

회기	영역 및 제목			프로그램 활동 내용
1	프로그램 안내 및 자기소개		활동 내용	· 프로그램 안내 · '나를 소개해'를 통해 집단원간의 친밀감 형성하기
2	학습동기	공부하는 이유	활동 내용	· 학교에 다니는 이유 써보기 · 공부하려는 이유, 진학하려는 이유의 순위 매기기 · 공부할 때 나만의 장점 · 20년 후의 모습 상상해보기
3		시간 관리	활동 내용	· 시간관리의 중요성 인식 및 원리 이해하기 · 하루 생활 계획표 작성하고 분석하기 · 하루 생활시간에 대한 반성
4		학습 습관	활동 내용	· 학습 태도 점검을 솔직하게 기록한다. · 학습 습관 계획, 방법, 태도 중 무엇을 어떻게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표하게 한다.
5		장래 희망	활동 내용	· 진로 탐색지를 작성한다. · 작성한 진로 탐색지를 자유롭게 발표한다.
6		장래 희망	활동 내용	· 자신이 갖고 싶은 직업이나 직업 유형에서 마음에 드는 직업을 1가지씩 돌아가면서 말해보게 한다. · 직업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100개를 적은 활동지를 나눠준다. · 보수나 작업 조건에 관계없이 마음에 드는 직업이 있으면 5개 이내로 표시하게 한다.
7	수업참여 기술 1 (수업경청)		활동 내용	· 이야기 소개: 상담자는 준비해 온 뉴스프로그램을 5분간 들려준다. · 들은 내용 말해보기 · 수업시간에 꼭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말해보기 · 듣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해보기 · 놀이를 통하여 듣기 연습하기
8	수업참여 기술 2 (노트하기)		활동 내용	· 노트필기 방법 점검하기 · 중요한 내용 찾아내기
9	과제해결 기술(읽기)		활동 내용	· 활동자료를 통해서 읽은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한다. · 제시된 사회교과서 내용으로 'SQ3R'을 적용하여 본다.
10	정보처리 (기억하기)		활동 내용	· 기억법의 간단한 방법들을 소개한다(여러 번 적어보기, 그림으로 나타내기, 첫 글자로 외우기 등) · 읽기자료 10 '세웅이의 이야기'를 읽고 답해보자.
11	시험준비		활동 내용	· 나의 경험 이야기하기 · 활동자료 '나의 시험 준비 태도와 시험에 대한 나의 기억'을 나누어 주고 지난 시험을 기억하며 성공한 경험과 실패한 경험을 발표한다. · 시험결과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더 중요함을 인식시킨다.

1992), 중학교 3학년 학교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김진숙, 2005), 학습부진아동의 학습기술 향상을 위한 독서요법 프로그램 개발(강영옥, 2007), 중학생 학급단위 학업발달 향상 프로그램이 학습습관 및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연구(부경란, 2008), 학습기술 훈련 프로그램(윤순희, 2007)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중학교 학습부진아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은 학습동기(공부하는 이유, 시간관리, 학습습관, 장래희망), 수업참여기술(수업경청, 노트필기하기), 과제해결기술, 정보처리, 시험준비로 구성되어 있다.

본 프로그램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상담심리 전공 대학 교수 1인과 현장 경력 15년 이상의 교사 2인을 통하여 내용의 타당성, 어휘, 문장 표현의 적합성 등을 검토 받았다. 프로그램의 내용과 학생들의 수준과 관련된 어휘, 문장 표현 등은 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매주 2회 60분씩 총 11회기가 진행되었다.

Warner-Prokos와 그의 동료들(2007)은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을 확보해야 학습기술프로그램의 효과가 입증된다고 주장했다(박한숙, 2009에서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학습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11회기(22시간)와 특별보충과정 20차시를 진행하여 효과성을 입증하려 했다. 또한 학습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11회기로 한 이유는 중학교 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진로집단 상담프로그램을 75분씩 13회기로 하여 효과성을 입증한 선행연구(박한숙, 2009)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기술훈련을 8주 실시하여 효과를 입증한 선행연구(권응환, 2004)를 참고로 했기 때문이다.

특별보충프로그램은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매주 각 2시간 씩 방과 후에 편성했다. 각 과목의 특별보충학습 프로그램은 해당 교과의 2명씩의 현장 교사가 공동으로 제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9)에서 개발한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변형하여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학습 단계를 고려하여 기본 학습 문제, 보충 · 심화 학습 내용을 구체화하여 학습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결손 된 정도를 확인하고 출발단계를 설정했다. 또한 특별 보충수업을 하고, 아침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 등 자유 시간에 자율적으로 학습하게 했다.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풀고 정답과 맞춰보면서 자주적으로 해결하게 하고 각 단계마다 담임교사의 확인 평가를 거쳐 통과하고 그 다음 단계의 학습을 하도록 했다. 틀린 문항은 선생님의 추수 지도를 통하여 보충 학습을 하도록 했다. 60%이상 도달했을 때만 다음 단계의 학습을 하고 이해가 부족한 학생은 반복 지도하고 잘하는 학생은 학습량을 제한하지 않았다.

각 교과별 지도계획은 국어, 영어, 수학 세 교과의 교과별 특성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고, 20차시 분량으로 지도계획을 마련하였다. 국어는 읽기, 말하기, 쓰기, 이해영역으로 구성했으며 영어는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 영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 흥미롭고 실용적인 생활영어를 학습하는 시간으로 구성했으며, 수학은 수와 연산, 문자와 식, 규칙성과 함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9)의 학습부진아 정의를 참고로 해서 인천시에 소재하

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행동과학연구소의 KIT-M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IQ가 정상수준이며(IQ 100-120) 직전 학기말 성적이 하위 20%에 해당하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점수의 평균이 60점 이하인 학생들 중 20명을 선발하여 10명은 실험집단으로, 10명은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측정도구

학습습관 검사

학습습관 검사는 박경숙과 이혜선(1976)이 제작한 학습습관 검사지를 중학교 3학년 수준과 현 교육과정에 맞도록 어휘를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본 검사는 주의집중행동, 학습기술적용행동, 자율학습행동의 3개의 하위 영역으로 되어 있고,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의집중행동'은 학습과정에서 주의집중을 잘하는지 또는 산만한지를 알아보는 것이고, '학습기술적용행동'은 학습에 대한 방법 또는 요령이 능률적인지 또는 비능률적인지를 알아보는 것이고, '자율학습행동'은 자율학습 또는 예습, 복습에 대한 습관이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 검사의 Cronbach α계수는 박경숙과 이혜선(1976)의 경우 .83, .82,. 94였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74, .73, .70이며 전체가 .95로 나타났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검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검사는 권응환(2004)이 제작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학습전략, 학습동기, 학습자 아개념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수는 23문항이고 권응환은 전체 Cronbach α계수 .78로 보고하고 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계수는 하위척도별로 각각 .89, .76, .90이며 전체 .94이었다.

절차

본 연구는 학습기술 향상 프로그램과 특별보충과정이 중학생 학습부진아의 학습습관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 적용된 실험설계는 표 2와 같다. 실험처치에 앞서 학습습관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검사하는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실험집단에 60분씩 총 11회의 실험처치를 한 다음, 실험처치가 끝난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종속변인을 측정하였다.

표 2. 연구 설계

실험집단	O1	X	O2
통제집단	O3		O4

X = 학습기술 향상 프로그램, 특별보충과정
O1 = 실험집단의 사전검사
O2 =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O3 =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O4 =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학습습관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검사를 2009년 2학기 초에 실시하였다. 학습기술 향상 프로그램은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총 11회기로 실시하였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방과 후에 60분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마지막 회기인 11회기에 프로그램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사전검사에서 사용한 2종의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실시하였다. 첫째,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Levene의 동질성 검사를 하였다. 둘째, 보충학습과 학습기술 프로그램이 학습습관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사후 점수에 대한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결 과

본 연구의 목적인 학습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중학교 학습부진아의 학습습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집단(N = 10)과 통제집단(N = 10)의 사전 사후 검사 점수를 비교한 결과표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의 변화가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집단 간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Levene의 동질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의 분산이 동질적임이 입증되었다. 이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사후 검사 점수에 대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따르면 학습부진아의 학습습관 전체 점수는 사전검사의 영향을 제거했을 때 집단의 주효과 [$F(1, 17) = 20.57$, $p < .001$]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효과크기 또한 η^2이 .55로 큰 효과 크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습관 하위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의집중 행동은 집단의 주효과 [$F(1, 17) = 25.59$, $p < .001$, $\eta^2 = .60$], 학습기술 적용 행동 [$F(1, 17) = 9.86$, $p < .01$, $\eta^2 = .37$], 자율학습행동 [$F(1, 17) = 5.84$, $p < .05$, $\eta^2 = .26$]로 학습습관 모든 하위영역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효과크기 또한 모두 큰 효과크기(.15 이상)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학습기술 훈련 프로그램은 중학교 학습부진아

표 3. 두 집단 간 학습습관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평균 및 표준편차

하위변인	집단 (N=10)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M*	*SD*	조정된 *M* (표준오차)
주의집중행동	실험집단	23.50	2.88	29.60	2.91	29.46(.86)
	통제집단	23.10	2.85	23.20	3.52	23.33(.86)
학습기술적용 행동	실험집단	21.70	4.40	26.10	3.76	25.98(.91)
	통제집단	21.30	4.32	21.80	3.91	21.92(.91)
자율학습행동	실험집단	20.40	4.53	24.70	3.34	24.59(1.19)
	통제집단	19.80	3.85	20.40	4.53	20.51(1.19)
학습습관 전체	실험집단	65.60	8.64	80.40	8.36	79.97(2.20)
	통제집단	64.20	8.51	65.40	8.80	65.83(2.20)

표 4. 실험·통제집단의 학습습관 하위영역 점수에 대한 공분산 분석

하위변인	변량원	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artial* η^2	*observed power*[1)]
주의집중 행동	사전점수(공변인)	63.57	1	63.57	8.69**		
	집단	187.31	1	187.31	25.59***	.60	.99
	오차	124.43	17	7.31			
학습기술 적용행동	사전점수(공변인)	122.68	1	122.68	14.70**		
	집단	82.24	1	82.24	9.86**	.37	.84
	오차	141.81	17	8.34			
자율학습 행동	사전점수(공변인)	43.78	1	43.78	3.09		
	집단	82.65	1	82.65	5.84*	.26	.62
	오차	240.71	17	14.16			
학습습관 전체	사전점수(공변인)	505.13	1	505.13	10.48**		
	집단	991.68	1	991.68	20.57***	.55	.98
	오차	819.66	17	48.21			

*p<.05 **p<.01***p<.001

의 학습습관 형성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실험·통제 집단의 학습습관 사후 조정된 점수 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통제 집단 간에는 조정된 학습습관 하위영역 사후검사 점수 모두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 보다 높은 점수 [주의집중행동(실험집단 M=23.99, 통제집단 M=21.11), 학습기술적용행동(실험집단 M=32.66, 통제집단 M=28.95), 자율학습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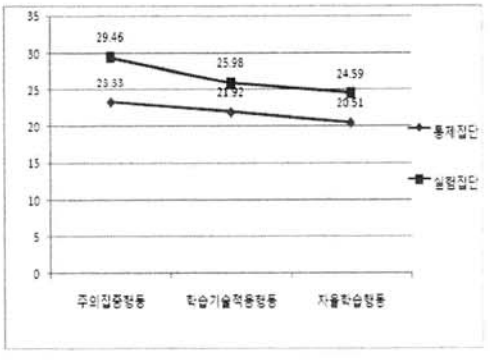


그림 1. 학습습관 하위영역별 조정된 사후점수 그래프

(실험집단 M=25.80, 통제집단 M=23.47)]를 나타내었고, 통계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학습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중학생 학습부진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1) *observed power*는 경험자료에 근거한 검증력이다. 예를 들어, 통계검증력 .99는 이런 효과크기에 이런 표본크기를 가지고 검증을(여기서의 1종 오류 확률은 .05)할 때 99%가 유의하게 나올 것임을 의미한다. 즉 유의하지 않게 나올 확률은 1%라는 의미이다.

표 5. 두 집단 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평균 및 표준편차

하위변인	집단 (N=10)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M	SD	조정된 M (표준오차)
학습전략	실험집단	15.00	4.67	18.90	3.84	18.66(.86)
	통제집단	14.40	3.86	15.00	4.67	15.24(.86)
학습동기	실험집단	11.40	3.63	17.70	2.31	18.11(.87)
	통제집단	12.20	3.22	11.40	3.62	10.99(.87)
학습자아개념	실험집단	15.90	4.53	21.50	4.22	21.56(1.21)
	통제집단	16.10	3.57	15.50	4.43	15.45(1.21)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전체	실험집단	42.30	11.61	58.10	9.07	58.54(2.62)
	통제집단	42.70	9.39	41.90	11.524	1.47(2.62)

한 실험집단(N = 10)과 통제집단(N = 10)의 사전 사후 검사 점수를 비교한 결과표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의 변화가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집단 간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Levene의 동질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의 분산이 동질적임이 입증되었다. 이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사후 검사 점수에 대하여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따르면 학습부진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전체점수는 사전검사의 영향을 제거했을 때 집단의 주효과 [F(1, 17) = 21.25, p< .001]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효과크기 또한 η^2이 .56으로 큰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하위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전략은 집단의 주효과 [F(1, 17) = 7.99, p< .05, η^2= .32], 학습동기 [F(1, 17) = 32.62, p< .001, η^2= .66], 학습자아개념 [F(1, 17) = 12.82, p< .01, η^2= .43]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모든 하위영역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효과크기 또한 모두 큰 효과크기(.15 이상)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학습기술 훈련 프로그램은 중학생 학습부진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실험 · 통제 집단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조정된 사후 점수 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 · 통제 집단 간에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하위영역 모두에서 조정된 사후점수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습전략(실험집단 M=18.66, 통제집단 M=15.24), 학습동기(실험집단 M=18.11, 통제집단 M=10.99), 학습자아개념(실험집단 M=21.56, 통제집단 M=15.45). 따라서 학습기

표 6. 실험·통제집단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하위영역별 사후점수에 대한 공분산 분석

하위변인	변량원	총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artial* η^2	*observed power*
학습전략	사전점수(공변인)	204.60	1	204.60	27.98***		
	집단	58.43	1	58.43	7.99*	.32	.76
	오차	124.30	17	7.31			
학습동기	사전점수(공변인)	43.83	1	43.83	6.08*		
	집단	235.37	1	235.37	32.62***	.66	1.00
	오차	122.66	17	7.21			
학습자아개념	사전점수(공변인)	89.71	1	89.71	6.17*		
	집단	186.50	1	186.50	12.82**	.43	.92
	오차	247.28	17	14.54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전체	사전점수(공변인)	775.59	1	775.59	11.37**		
	집단	1449.92	1	1449.92	21.25***	.56	.99
	오차	1160.20	17	68.24			

*p<.05 **p<.01***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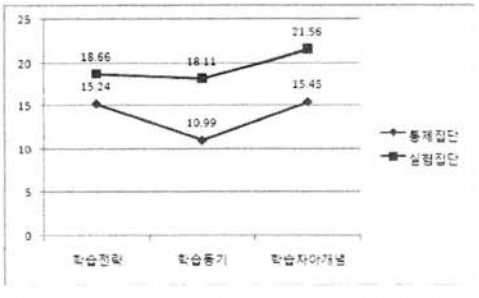


그림 2.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하위영역별 조정된 사후점수 그래프

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부진중학생 집단은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이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학습부진 중학생을 위한 학습기술 향상 프로그램과 특별보충과정이 학습습관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습기술 향상 프로그램은 학습에 관련된 프로그램과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학습부진 중학생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했고, 특별보충과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9)에서 개발한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사용하였다.

집단상담을 통하여 학습기술 즉 학습계획능력, 효율적인 학습방법, 불안 해소, 시험요령 등을 습득시킨 다음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 교과목과 관련된 기초 지식을 학

습시킬 때 학습부진 학생의 학업성취 능력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준다는 선행연구(김동일, 2000; 박성익, 1986; 서병완, 1983)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학습부진 중학생에게 학습기술 프로그램과 특별보충과정이 학습습관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기술 향상 프로그램과 특별보충과정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학생들이 통제 집단에 비해 학습습관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연구 문제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기술 프로그램과 특별보충과정이 중학교 학습부진아의 학습습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를 위해 중학교 3학년 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학습기술 프로그램과 특별보충과정을 실시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사후 검사 점수에 대하여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학습 습관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율학습 행동보다는 주의집중행동과 학습기술 적용행동 변인에서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학습기술 훈련이 학습습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권응환(2004)의 연구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주의집중행동, 학습기술적용행동, 자율학습행동 영역을 포함한 수업참여기술 프로그램이 학습습관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강혜숙(2007)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 외에도 초등학교 4학년 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한 학습기술 훈련이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학습습관을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김현숙, 2006; 박인주, 2005), 초등학교 학습부진아의 자기관리기술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관리기술 향상에 관한 민은주(2004)의 연구와 일치한다. 즉 본 연구 결과는 초등학교 학습 부진아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는 중학생 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학습기술 훈련이 학업 성적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연구(김남옥, 1992)를 확장시켜 학습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학습습관 형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특별보충과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그것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자기효능감 향상을 포함한 학습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특별보충 프로그램이 학습부진아 집단에서 학습습관 형성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확인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습기술 프로그램과 특별보충과정이 중학교 학습부진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사후검사 점수에 대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전략뿐 아니라 학습동기와 학습자아개념 형성에도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학습기술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켰다는 권응환(2004)의 연구,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학습기술이 자기주도적 학습능

력을 향상시켰다는 우옥연(2004)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는 최은순(2007)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초등학교 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자기관리기술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이하선(2007)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실시한 학습부진 중학생을 위한 학습기술 프로그램과 특별보충과정이 학습습관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중학교의 학습부진아의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주며, 학습습관과 자기주도적 학습에 있어서 학습기술 향상 프로그램과 특별보충과정의 중요도를 입증하는데 의의가 있다. 즉 학습기술에 대한 연구가 주로 초등학생이나 대학생을 위주로 이루어진 데 반해 본 연구는 상급학교의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학생의 학습습관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기술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실제적으로 입증하여 학습부진 중학생의 학습자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하는데 구체적인 개입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학습기술 프로그램과 더불어 특별보충과정을 병행 실시하여 학습기술 프로그램에서 학습한 전략들을 특별보충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어 효과가 지속될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가 자기주도적 학습과 올바른 학습습관 형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중학교 학습부진아의 스스로 학습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며, 학생들의 학업·정서적 문제를 예방하고, 상급학교에서의 전인적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중학교 3학년 중 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하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인원이 각각 10명이므로 연구결과를 다른 학습 부진아에게 일반화하기에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9)의 교과학습부진아의 개념과 교육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근거인 IQ가 정상수준이며 교과별 총점이 60% 미만, 총점의 40-70% 미만인 기준을 적용하여, 직전 학기말 성적이 하위 20%에 해당하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점수의 평균이 60점 이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각 과목별 점수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주된 한계라 볼 수 있다.

둘째, 학습부진아에 대한 판정과 이들에 대한 특별보충학습 프로그램의 적용이 각 학교에 위임되어 있어, 학교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학습부진아 선발 기준에 따라 연구 결과 또한 다르게 도출될 수 있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의 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도출되는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가 수행한 교과인 국어, 영어, 수학 외에 다른 교과에서도 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같은 결과가 도출되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과목의 성격에 따른 학습습관의 형성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차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

째, 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한 특별보충과정 이후 정규 수업에서도 긍정적인 학습습관 형성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명숙, 이현림 (2007).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학습부진의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직업교육연구. 26(2), 1-18.

강영옥 (2007). 학습부진아동의 학습기술 향상을 위한 독서요법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태용 (2002). 학습기술 훈련이 고등학생의 학습습관,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강혜숙 (2007). 수업참여기술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습습관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교육과학기술부 (1999).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 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 (1998).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권응환 (2004). 학습기술 훈련이 초등학생의 학습습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남옥 (1992). 학습부진아에 대한 진단적-처방적 학습기술 훈련의 효과.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동민 (2003).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김동일 (2002). 학습부진아 개입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두뇌한국 21 아시아태평양교육발전연구단.

김동일 (2005). 학업상담을 위한 학습전략 프로그램. 서울: 학지사.

김명생 (2007). 중학교 수학과 특별보충과정이 자기효능감 및 수학불안에 미치는 효과.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미화 (2003). 학습부진아의 자기 개념 및 학습동기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애숙 (2004). 수학과 특별보충과정 지도 및 평가에 관한 개선 방안.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주 (1998). 초등학생의 학업수준에 따른 학습기술간의 차이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준영 (2005). 수학과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및 인식 조사-대구시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진숙 (2005). 중학교 3학년 학교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행자 (2005). 중학교 영어과 특별보충과정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숙 (2006). 학습우수아와 학습부진아의 학습기술 차이 분석.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형립 (1984). 학습부진아 프로그램.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혜영 (2004). 학습부진아를 위한 특별보충과정 운영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나경숙 (2008). 학습전략과 학습관련 정의적 특성이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민은주 (2004). 자기관리지도가 학습부진 아동의 학습기술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경숙, 이혜선 (1976). 학업에 대한 자아개념, 태도, 학습습관 검사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박인주 (2005). 학습기술훈련이 학습부진아의 학습 습관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인주, 박남수 (2006). 학습기술훈련이 학습부진아의 학습습관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7(2), 89-106.

박한숙 (2000). 학습기술 훈련이 초등학교 아동의 학습태도, 성취동기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한숙 (2009). 학습기술 훈련이 초등학교 중학년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학업 성취에 미치는 효과. 초등교육연구, 22(3), 159-183.

박한숙, 설양환 (2009). 초등학교 중학년용 학습기술 검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초등교육연구, 22(2), 163-184.

박현화 (2006). 중학교 특별보충과정에서 상호적인 또래 교수가 수학적 성취도와 수학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변영계 (1993). 중·고교 학생들의 학습기술 훈련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31(3), 21-36.

변영계, 김석우, 박한숙 (2000).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기술 측정도구와 훈련프로그램 개발연구. 교육평가과정. 한국교육평가학회, 14(1), 103-125.

변영계, 박한숙 (2004). 학습기술 훈련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초등학생용. 서울: 학지사

부경란 (2008). 중학생 학급단위 학업발달 향상 프로그램이 학습습관 및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병완 (1983). 학습부진아의 유형분석과 상담모형 개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병완 (1988). 학습습관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및 학습활동지도 프로그램. 교육논총, 4(1), 45-70.

심기만 (2004). 제 7차 교육과정의 특별보충과정 운영실태-강원도 소규모 중학교 수학교과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심상미 (2002). 중학교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안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원효헌·김명생 (2009). 중학교 수학과 특별보충과정이 학생의 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효과분석. 해양수산교육연구, 26(2), 151-160.

우옥연 (2004). 학습기술 향상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학습기술 및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미선 (2003). 사고 양식에 따른 학습동기 및 교과 흥미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순희 (2007). 학습기술 훈련이 중학생의 학습태도, 학습동기,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옥기 (1980). 학습지진학생의 기억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재훈 (2003). 중학교 특별보충과정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과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연

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상미 (2003). 초등학교 교사들의 특별보충과정 운영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신동 (2001). 상보적 교수활동이 학습부진아의 독해전략과 자기조절 학습전략의 확용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15(3), 164-171.

이순우 (2002). 학업성취관련 학습기술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진명, 이상민, 남숙경 (2008). 수학교과에서의 초등학교 고학년 일반아동과 학습부진아동을 구별하는 요인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3), 305-323.

이하선 (2007). 자기관리기술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학습부진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학습습관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인실, 이성구 (2009). 자기조절학습프로그램이 수학 학습부진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초등교육연구, 22(4), 327-349.

최은순 (2007). 학습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은정 (2006). 초등학교에서의 수학 학습부진아를 위한 특별보충과정 운영실태 및 개선 방안. 여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8). 초등학교 학습부진아 지도 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9). 초등학교 학습부진아 지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은미 (2003). 영어학습부진아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안: 특별보충반 학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Cohen, J. (1977).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rev. ed.)*. NY: Academic Press.

Fralick, K. G. (1990). *Study skills: A junior high/middle school integrate curriculum study*. Boston University.

원 고 접 수 일 : 2010. 06. 02.
수정원고접수일 : 2010. 07. 16.
최종게재결정일 : 2010. 08. 11.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10, Vol. 7, No. 2, 151-170

The Effects of Study Skill Training Program and Special Supplementary Learning Program on Improvement of Underachievers' study habit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e Jung Kim
Hyosenon Middle School

Jee Yon Lee
Univerity of Incheon

Eun Jin Lee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verify the effect of study skills training program and special supplementary learning program on improvement of underachievers' learning ability.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first, the Study Skill Training Program and Special Supplementary Learning Program is reconstructed to fit for level of underachievers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samples of this research are two specific classes of thir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in H middles school of Incheon city. This students consisted lower 20% group in term test, especially below 60 points in Korean Language, English, Mathematics, Science and Social Studies. Each class where contains 10 students were identified as a sample of an experimental group and a controllable group. Belonged to experimental group, eleven 60 minutes sessions of study skills training program and special supplementary learning program were performed twice a week whereas session were not provide for control group. Collected data from the test was statistically analyzed by ANCOVA of SPSS 15.0. As a result, in terms of the experimental group who participated in sessions, the level of study habit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than control group who was not provided for sessions. The result imply that both study skills training program and special supplementary learning program are significantly effective to improve underachievers' study habit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Key words : Underachiever, Study Skill, Study Habit,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